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참여형 메세나 사업

이준하 한화그룹 홍보팀 부장

culture art

한화그룹의 메세나 사업은 문화를 활용한 즐거운 사회공헌으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순 후원을 지양하고, 직접 자원봉사를 통해 문화소의 지방 주민 및 소외계층과의 만남을 꾸준히 가지는 '참여형' 문화사업이다.

지난 2002년부터 '사랑의 친구, 미래의 친구' 라는 슬로건을 걸고 본격적인 사회공헌사업에 나선 한화그룹은 모든 문화예술은 특정계층의 향유물이 아닌,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 아래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 사업의 특징과 주요 활동 사례

한화 메세나 사업의 특징은 문화를 활용한 즐거운 사회공헌이다. 순수 문화계 지원과 더불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문화소외계층뿐만 아니라 그룹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또한 단순 후원을 지양하고, 직접 자원봉사를 통해 문화소의 지방 주민 및 소외계층과의 만남을 꾸준히 가지는 '참여형'이라 할 수 있다.

한화는 지난 2001년 이래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교향악 축제를 6년째 지원, 교향악과 일반인의 만남에 기여하고 있다. 역량 있는 연주자를 발굴해 소개하는 전국 규모의 '교향악 축제 2005'에서는 20개 전국 교향악단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기획했으며,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우, 산간벽지 아동들을 초청해 교향악 축제는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2004 메세나 대상'에서는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대기업 부문 보급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화 메세나 활동도 활발하다. 기존에 고급문화로 여겨지던 순수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2004년도 봄에는 천안, 대전 및 창원에



매년 가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위치한 공장과 한화 리조트 설악(속초), 한화석유화학 여수공장을 중심으로 각 계열사 사업장이 후원하는 보호시설 아동 및 시민들을 초청해 '한화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클래식 세상'을 개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향유의 혜택이 부족한 이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2005년에는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전국 3개 도시(인천, 대전, 울산)를 순회하며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였다.

한화는 해외에 우리 문화 알리기에 힘써 중국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양국 청소년들의 상호 교류를 도모코자 2003년 3월부터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의 우루무치 상업학교 및 한글학교 후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2004년 여름에는 천안북일학원 학생 13명이 우루무치 현지를 방문하여 우루무치 한글학교 학생들을 위해 사물놀이 공연과 전통혼례 등을 선보였다. 또한 이 공연에는 중국 예술학교 학생들도 참여하여 한중문화 교류축제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였다. 이 공연을 통해 한국에 관심 있는 우루무치 현지인들에게 중국 내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풍물과 전통 혼례 같은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2004년 10월에 새롭게 단장한 한화그룹 홈페이지에는 기업 최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메세나 콘서트' 코너를 신설, 고객들의 참여를 통해 공부방 아이들에게 공연티켓을 선물하고 고객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시민들에게 한화는 매년 가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를 개최한다. '꿈과 희망'을 주제로 하여 2004년도에는 중국과 호주(9일), 이탈리아와 한국(16일) 등 4개국 불꽃놀이 팀이 참가해 경연을 벌였으며, 행사장에 한화그룹이 후원하는 공부방 어린이와 교사 160여 명을 초청하여 식사와 레크리에이션, 불꽃놀이 관람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2005년도에는 'MBC 눈을 떠요!' 프로그램의 개안자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생애최초의 불꽃쇼를 선물하기도 했다.

### 향후 메세나 활동 전망

문화지원사업이란 장기적인 안목과 꾸준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개인, 기업, 나아가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일조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큰 의미의 발전적인 사회공헌이라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일회성 지원이 아닌 공연단체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화와 문화예술단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교향악 축제와 청소년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은 꾸준히 지속사업으로 해나갈 것이며, 전국에 있는 소외계층 초청행사 또한 더욱 활성화 할 것이다. 또한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선사하고자 '청계천 문화마케팅' 사업도 새롭게 시작해나갈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앞으로 더 많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문화를 향유할 권리는 있기 때문이다. 🎨